



호모 에렉투스, 직립의 인간

허만하
《길과 풍경과 시》 저자

허만하 시인은 _____ 스스로를 가둘 줄 아는 사람이다. '시'라는 세계에, '부산'이라는 세계에, '의사'라는 세계에 허만하는 기꺼이 간혀 살기를 원했고, 이제 그의 삶은 그가 산 세계로 요약된다. 부산에 사는 시인, 병리학자 시인, 길과 풍경의 시인...

병리학 교수직을 은퇴한 지 여러 해가 지났고, 칠순을 넘어선 나이이지만 그에게는 시간의 여유로움이 줄 법한, 나른한 기운이 전혀 묻어나지 않는, 날이 선 메스처럼 사람을 긴장시키는 힘이 있다.

의대 재학시절 릴케를 통해 시의 세계에 들어선 이후, 그는 시와 병리학이라는 큰 세계의 틈에서 균열을 느낀 적이 없었다. 병리학자로 살아온 세월도 좋았고, 이제 세 권의 시집을 낸 시인으로 살아온 세월도 좋았다. 그런 그에게 산문은 색다른, 시의 다른 이름이다.

“육이오 이후 이상주의가 무너지고, 소위 이상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마침 의예과 학과장님이 독문학 강의 시간에 릴케를 소개하셨어요. 릴케 전에도 시를 보았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 시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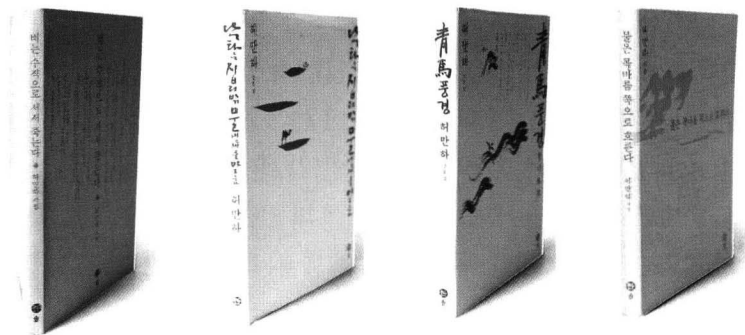
사유가 담긴 산문

솔 출판사에서 2002년 12월 출간된 《길과 풍경과 시》에는 “한 줄의 아름다운 표현을 찾아” 길 위에 선(진행형에 주목해줄길) 한 시인의 풍경과 시에 대한 사유가 잘 짜여진 흑백의 직물처럼 펼쳐져 있다.

“요즘 산문이라는 장르는 너무 얇지 않은가 생각해요. 사유의 지층이 없다는 것이죠. 난 일반 에세이도 좋지만, 사유가 담긴 산문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첫 시집 《해조》(1969) 이후 30년 만에 낸 두 번째 시집 《비는 수직으로 서서 죽는다》(1999)를 발표하며 문자 그대로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받은 이후 그의 발걸음은 좀 빨라졌다. 《낙타는 십리 밖 물 냄새를 맡는다》(2000), 《청마풍경》(2001), 두 권의 산문집을 내고 세 번째 시집 《물은 목마름 쪽으로 흐른다》와 《길과 풍경과 시》라는 세 번째 산문집을 요 몇 년 새에 연달아 발표한 것이다.

“1997년 퇴직한 후부터 열심히 쓰고 있어요. 병리학자로서의 의무에서 풀려나니까 섭섭하기도 하지만, 자유롭게 시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어 좋습니다. 난 산문도 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닥치는 대로
슬라이드 위에 엮어 들여다봤다.
잎의 단면, 파뿌리, 개의 정액 등등(…) 나는 어느덧 또 하나의 현미경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라는 것이었다.

현미경

요즘 그가 자신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길의 생태학'이다. 부인과 함께 다니는 여행길에서 그가 발견하는 것은 길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이다.

1957년 <문학예술>로 등단했을 때 그의 당선 소감 제목은 '현미경'이었다. 허만하라는 시인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에 있어 현미경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나는 닥치는 대로 슬라이드 위에 엮어 들여다봤다. 잎의 단면, 파뿌리, 개의 정액 등등(…) 나는 어느덧 또 하나의 현미경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라는 것이었다.”

“해방이 되었을 때 고물 현미경이 정말 갖고 싶었어요. 참 좋았어요. 그리고 결국 평생 현미경을 만진 셈이네요. 전 미세한 분야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 산문도 마찬가지로 무의미해 보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내 관심사는 길의 태어남과 죽음입니다.”

최근에는 영하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삼랑진에 다녀왔다. 사라진 길을 찾아서였다.

“동래에서 한양까지 이어진 길인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 길의 코스 중에 중요한 데가 있는데, 석교리라고, 국제신문에

<사라진 석교리>라는 글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찾았어요. 삼랑진 주민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거기 매화가 아주 좋아요, 거기 그 매화 길이.”

이 '풍경의 시인'은 길을 떠나기 전 사전 준비를 많이 한다. 숙제를 늘 하나씩 갖고 간다. 한 곳의 계절별 추이를 보기도 하고, 인문학적 숙제를 가져가기도 한다. 그러면 찾아가는 길이 더 풍부해진다.

호모 에렉투스

“지방문인이라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지 가끔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오히려 변방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적인 이야기지만 서울에 있었으면 내가 많이 소모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타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오히려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좋죠. 지금도 제일 어려운 건 문단이란 관계 맺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지방에 있어도 반드시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믿어요. 건방지지만 그 정도의 자긍심은 갖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죠. 손이 길을 만들어 나를 찾아온다는 거지요.”

“시는 시만으로 직립해야 한다. 하늘의 높이에서 열어 있는 햇살의 폭포같이 수직으로 혼자서 가야 한다”는 그 자신의 표현처럼 그는 병렬보다는 직립이 어울리는 사람이다.

타인과의 관계 맺기라는 병렬적인(?) 삶 대신 그는 스스로를 타인과 떨어뜨려 놓는 삶의 방식에 더 친근하다. 그런 그가 최근 일련의 책을 한 출판사에서 낸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서울에서 임우기 사장이 전화를 주셨어요. 시집을 내고 싶다고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첫 시집도 남들이 내준 거고 절차를 잘 몰랐는데, 출간해 주겠다고 하니 고마워서 냅니다. 기꺼운 마음으로요. 그렇게 해서 《비는 수직으로 서서 죽는다》가 발표된 겁니다. 또 술이 좋은 책 내는 출판사라고 주변분들도 말하시더라고요. 그 인연으로 계속해서 술에서 책을 내고 있습니다.”

행복은 세월의 물길 아래서
반짝이는 차돌처럼
지나고 나서야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청마 풍경》을 냈을 때 많은 사람이 그가 청마의 제자가 아닌가 짐작하기도 했지만, 그는 단지 한 사람의 시인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전기문학 전범이 국내에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아는 한 재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작업한 것이라고 한다.

“제 시는 청마의 스타일과는 많이 틀리죠. 김춘수 선생이 《시색 사화집》에서 제 시를 관념시라고 하셨는데 그 지적에 동의합니다. 옳다 싶어요. 이제까지 본 중에 제일 정확하다 싶은데, 아마도 김춘수 선생 본인이 그만큼 많이 쓰시다 보니 정확히 꿰뚫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시의 지층, 사유의 지층이 얽다고 본다. 그는 자신의 시에 철학이 배어들어가길 바란다.

“추상적인 말이지만 시를 쓰거나 사유를 전개해나갈 때 뼈대가 있어야 옷을 입힐 수 있다고 봅니다. 책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수선화라는 놈이 아주 특이해요. 수선화는 겨울에만 피는데, 향내가 정말 좋고, 그 겨울에만 피는 이유가 생물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자기 순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짓을 하나면 말이죠. 벌 나비를 통해 생식을 하면 잡종이 생기니까 순수를 지키기 위해 벌 나비 없는 겨울에 피는 겁니다. 조만간 또 제주도도 갈 계획인데, 이렇게 수선화라든가, 기와라든가, 관심이 가는 것에 대한 사유를 전개해 나가다 보면 즐겁기도 하고 그게 글이 되기도 하지요.”



첫 시집 《해조》(1969)와 일본에서 출간된 《銅店驛》.

항상 신인이고자 하는 젊은 시인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거동이 많이 불편해졌지만, 아내와의 여행과 책 읽기와 책 수집에 대한 취미를 버리지 않고 그는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 다만 직접 서점을 다니는 대신 아마존 경매를 통해 희귀한 책을 수집하는 식으로 방식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다.

요즘 그는 릴케의 러시아 여행에 관한 두 권의 책을 읽고 있다. 책도 읽고, 같은 단지 내에 있는 아들 내외가 출근하면 세 살 된 손주와 함께 한나절을 보내는 즐거움에 젖어 있기도 하다. 글쓰기는 주로 늦은 밤에서 새벽까지 이어진다. 문득 문득 외국에 나가 있는 두 살붙이(그의 두 딸은 외국에 분자생물학 연구원으로 나가 있다)가 그림기도 하지만, 특별히 넘칠 것도 모자랄 것도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메스로 군더더기의 감정을 잘라낼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이 ‘젊은’ 시인은 <출판저널>에서 좋은 책으로 선정해 주었다니, 너무 뜻밖이다. 정말 좋다고 정확히 두 번을 연이어 말했다. 그의 음성과 억양은, “행복은 세월의 물길 아래서 반짝이는 차돌처럼 지나고 나서야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자신의 말처럼 모든 여타의 감정을 배제한 순수 그 자체로 허공에 직립했다. **김민**

취재 양선희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